

여야 “19일 본회의서 데이터3법 최대한 처리”...패트는 이견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회동

여야정상설협의체 5당 확대도 결론 못내

여야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19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3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의 경우 이날 최대한 처리를 목표로 논의의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이 3개이지만 다 (처리)할 수 있는지, 2건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진행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너무 뒤처져있다”며 “진도가 늦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우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19일에 (처리가) 되는 법이라도 하자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국회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행정입법에 대해 통제하는 정지를 두는

것을 비롯해 비쟁점 법안과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해서 최대한 (처리에) 노력을 하는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됐다”며 “행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9일 외에도 이날 말 본회의를 재차 열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11월말 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며 본회의의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및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은 12월3일 사각특위 법안을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불법적 부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은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한 번 말했다”며 “1월 말이 되기 전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지만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제대로 합의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희상 의장은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법안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정상설협의체를 교섭단체가 아닌 5당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오는데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일정과 관련해서 오는 20-22일 사이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 카운터파트와 면담이 우선되면 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의미 있는 카운터파트가 형성되지 않으면 제고할 생각”이라고 했다.

여야가 충돌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나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도 청와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재차 요청했다고 했다.

이라고 했다.

여야가 충돌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나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에서도 청와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재차 요청했다고 했다.

이용빈 민주당 광산갑 위원장 출판기념회 ‘대성황’

정치·경제 분야 리더, 주민, 지지자 등 3500여명 참석
광주 출신으로 월곡동에 병원 개업 서민들 삶 보듬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지역위원장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일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안보 분야 리더를 비롯해 우리 지역의 주민, 지지자 등 약 3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영은, 표창원, 설훈, 박홍근, 최재성 국회의원, 양향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등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에서 “이용빈 위원장의 삶 자체가 드라마다. 마을주치의의 로서 몸과 마음을 치유했던 의사, 그리고 우리 사회, 정치, 민족의 주치의로서의 여정을 걸어간다”며 “용빈아! 잘 부탁해”라고 축하를 전했다.

저자와 대화를 위해 무대에 오른 송유진(전 제17보병사단장), 공성술(웹툰작가), 장미희(북한 이탈주민), 김영오(세월호), 김기순(주민자치), 박종민(사회복지), 유경순(농부), 정성범(청년 농부), 이송재(소상공인), 신정호

(청년정치인) 등 10명의 대담자는 ‘반가운 사람들과의 반가운 만남의 과정’을 담은 여정이자, 사회의 여러 면을 폭넓게 비추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빈 저자는 광주 출신으로 육사를 자퇴하고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월곡동에 병원을 개업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강화 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최고 권위인 보령제약 의료봉사상 수상에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최우수 위원회 선정 당대표 특별포상,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우수활동 경진대회 1등,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회 제로페이 캠페인 당대표 특별포상 등 3관왕을 차지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지역위원회의로 올라섰다.

임택명 기자

권은희 “직접 만나서라도 소통”...안철수 찾아 ‘미국행’ 시사

“한국당, 유승민 3대 원칙 달성 불가...통합 없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내달 미국을 방문해 보수통합론 등 정국 현안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의중을 듣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저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생각보다는 안 전 대표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늦어도 12월에는 제가 안 전 대표를 직접 보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직접 소통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무언기를 결정하고

선택할때 안 전 대표가 나를 따르라든지 저희들이 리더로 응립한다는 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금껏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먼저 주장하며 힘든 길을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의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안 전 대표를 만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저희가 저희의 길을 가다 보면 안 전 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통합 가능성에 대해 “통합은 없다”고



일축했다. 권 의원은 “유 대표가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3대 원칙이 진정성있게 수용된다면 통합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는데, 사실 3대 조건이 한국당에서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무성 “품위있는 퇴장으로 보수통합 밀알”...불출마 재확인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수는 품격이다. 품위있는 퇴장을 하면서 보수통합의 밀알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대안찾기’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

나 “우리 당이 어렵게 된 과정에서 제가 책임자급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파 정치세력이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각 지

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중진 배제론)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이 아닌 가산제를 잘 활용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